

성범죄사건 양형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황규진**·박우현***·이수정****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심리특성, 피고인 요인 등 법률 외적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감정호소,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연구 참여자 총 351명(여성 173명, 남성 1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배심원일수록 피고인에게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한편 배심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호소 여부에 따라서는 양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와 양형의 관계에서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법률 외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동정심을 호소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언론의 여론몰이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성범죄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준거로서 피고인 자신의 변론보다 제3자의 탄원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양형기준, 국민참여재판, 감정호소, 탄원서, 배심원의 심리특성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babypink8227@gmail.com)

*** 공동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alucard1720@hanmail.net)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suejung@hanmail.net)

I. 서론

199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전처와 남자친구를 살해한 O.J 심슨의 배심원 재판에서, 심슨이 범인임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들이 제출되고 다른 유력 용의자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심슨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이 심슨에 대해 ‘검둥이(Nigger)’라는 표현을 41차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에 호소하였고, 그 전략이 성공하여 무죄 평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같이 사건관련자들이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변론이나 진술의 오류가 발생하고, 증거와 법적 논리보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소지가 있다(김현수, 2009). 특히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인은 법관보다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청택·최인철, 2010).

이렇듯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의 결과가 변호인과 피고인의 동정심 호소와 법률 외적인 증거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병수, 2018; 경향신문, 2021; 조선일보, 2012). 우리나라 배심재판에서 법률 내적인 요인과 법률 외적인 혼재된 측면은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즉, ‘의심스러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피고인이 배심원을 상대로 법률 외적인 측면 중 판결에 유리한 부분을 자극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이를 수도 있는 양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London과 Nunes(2000)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성폭행 혐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처벌 판단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가자들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 이 연구는 성범죄사건에서의 법률 외적인 증거가 판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약 10여 년이 지났으나 배제되어야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 무분별하게 유입되었을 때 배심원들의 선입견과 편견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심원에 의한 감정 재판, 여론 재판’이라

는 비판이 지속 제기된 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보호, 피고인 측의 선처 탄원서 제출 여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또한, 배심원의 심리특성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 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배심원에 대 한 감정보호, 선처 탄원서가 이를 조절하는지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성범죄사건과 무관한 배심원의 통념과 같은 심리특성이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 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제 출한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이 불명확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감경요소가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성범죄사 건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것은 성범죄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 청 건수가 적지 않고 성범죄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백한 증거가 부재함에 따라 외적 요인에 의존할 여지가 가장 강한 사건 유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사건의 건수는 살인죄와 비교할 때, 2013년에 살인죄 65건/성범죄 66건, 2014년에 살인죄 54건/성범죄 42건, 2016년에 살인죄 33건/성범죄 31건, 2017년에 살인죄 20건/성범죄 38건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윤영석, 202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재 판에서 공정한 판결에 이르기 위해 법률 외적 요인이 성범죄사건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국민참여재판

대한민국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 주권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 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한상훈, 2016).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 중에 선발된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직업 법관과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함께 재판을 한다(정종섭, 1996).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대법원 국민참여재판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 법관에 의하여 심리·종결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인 배심원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제에 의하면 배심원이 된 국민은 검사와 변호사의 법적 공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린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2항). 만약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결 전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는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에 따라 진행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3항). 이때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가 제시하는 다량의 증거, 이를 뒷받침할 논거 및 전문적인 법률 지식 등이 혼재된 법정에서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에 대한 사실판단과 양형 판단을 동시에 마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가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배심제의 특성상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증거들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무죄가 불확정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과, 경제 사정, 교육 정도, 사생활 등의 양형 사유들이 공개된 재판에서 노출되어 배심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게 된다(한인섭, 2009; 한상훈, 2016).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사건 중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14건에서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14건 중 12건은 배심원의 무죄를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었고,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법관과 배심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되는 배심원의 심리적 특성과 피고인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홍진영, 2017).

2. 성범죄사건의 판사와 배심원의 처벌판단

박광배 등(2005)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모의 형사 배심재판 연구에서 평의 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최종평결에서는 다수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소수파 배심원들이 다수파 배심원의 의견에 동조하기 때문인지(사회적 동조), 평의 과정에 의해 개인적 판단에 내용적 변화가 생겨 다수의견으로 전향하였기 때문인지(인지적 전향)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던 초기 다수파 배심원들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진지하게 고려하였고, 초기 소수파 배심원들이 사회적 동조가 아닌 인지적 전향에 따라 만장일치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들어 2021년 8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의안 번호: 12066), 배심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이나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배심원 개인의 편견, 배경에 따라 의사결정이 일정 부분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재판 전 배심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서 법원은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판결 선고된 총 1,398건의 사건 중 1,274건(93%)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94(7%)건 중 일부는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사례였는데(YTN, 2018) 이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성범죄 양형기준

우리나라는 각 법원 사이에 존재하는 양형 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되는 기준을 말하는데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 1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81조의 6에 의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7월 1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현재 시행 중인 우리의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가중 또는 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양형구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고형의 범위를 재판부에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여인권·이경렬, 2014).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하면서 양형 사유 중 ‘진지한 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자료, 2022).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뿐 아니라 기타 범죄의 처벌에서도 참작 요소로 고려되어왔지만,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양형 판단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진지한 반성이 양형 감경 인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도 생겨났고 국회에서는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도 발의되었다. 이에 진지한 반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성폭력상담소, 2020).

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선고된 총 137개의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8건의 판결들에서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선처용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양형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따라 당면한 형벌을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 대필, 장기 기증, 가해자 가족을 동원한 호소 등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축적하고 수사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판매하는 실정이다(김보화, 2020).

4.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외적 요인

법적 판단에 있어서 법률 외적요소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성범죄사건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외적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피고인의 평판, 피고인의 성격증거, 감정호소,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배심원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들이 재판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요소인 감정호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변수의 간명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평판이나 성격증거는 제3자의 탄원서에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심원의 개인 특성 중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1) 재판정에서의 감정호소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 관련 고소가 증가하면서 성범죄 혐의 가해자들을 대상 맞춤 감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로펌들이 증가하고 있다. 배심원의 감성을 자극하여 무죄 선고를 견인하겠다고 광고하는 한편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하고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각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컨설팅도 성행하고 있다(한겨레, 2021). 구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궁핍한 처지, 부양가족이 있음을 강조하는 등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대응 전략을 세워주기도 하는데(김보화, 2020), 이러한 성범죄 전문 로펌들의 가해자 중심의 광고내용, 변호 과정, 재판 전략들이 2차 가해를 양상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운용과 관련된 김광준 외(2008)의 연구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40명의 검사 중 22명이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40%가 ‘배심원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평결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측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 무렵 피고인 및 증인이 처한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협박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젖먹이 아기를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울며 선처를 호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고합7 판결).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채업자의 협박에 의한 범죄이고, 어린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등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 전략을 내세웠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로서, 피고인의 법적 판단 결정시 고려되지 않아야 할 동정심과 같은 법률 외적 요인이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동정심을 느꼈으나, 동정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배심원 연구도 있는 등(김광준 외, 2008)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2)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19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n번방 회원들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과 같은 감형 전략을 재빠르게 공유하였다. 이렇듯 성범죄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감형을 받는데 필요한 일종의 팁을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지한 반성’은 감형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측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을 표현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반성인지, 감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김보화, 2020).

2018년 미성년자 자녀의 친구를 유인, 추행,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원심에서 16회, 2심 선고를 앞두고 26회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도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총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실제 원심 판결문에는 ‘반성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한 별을 받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심 판결문에서는 ‘반성문들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만으로 그 반성문들과 법정 진술들이 반성이나 참회 없는 위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57, 2018고합2, 16, 17, 19 각 병합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의 재판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감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감형기준 중 진지한 반성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전면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2021).

2020년, 입양한 여자아이를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소위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양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판결문에서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당시 양모는 총 32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피해자가 아닌 법관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총 100여 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재판이 끝나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판결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 증언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이렇듯 성범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후 교도소 안에서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히 2차 가해를 발설하거나 재판 종료 후 즉시 후원을 철회하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반성문 대필 사이트에서 보내 준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가해자인 아버지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나 성격에 대한 진술이 담길 수 있다. 명시적인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감경 사유에 준하여 활용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예로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25년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해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333 판결). 또한, 미투(Me too)의 촉발로 인해 한국 사회에 드러나게 된 연극계 성추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극계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극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점’을 감경 사유로 삼았다(2018노2658, 2019노531(병합), 2018보노(병합)). 이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들이 무차별적으로 제출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문제가 된 혐의사실과 평판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강우예, 2022).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대해서도 고민조·박주용(2020)은 재판에서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긍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되는 경우보다 유죄 판단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형성된 판단은 이후 변호인과 검사의 변론을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 재판부가 피

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서를 의견서에 기재할 소지도 다분하므로 피고인의 평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함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배심원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

통념이란 사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신념으로, 복잡한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자의 편견, 선입견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판단자의 성범죄와 관련된 통념이 성범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 다수 존재한다(이예림·박지선, 2021; 김보경·김범준·최종안, 2020; Grubb & Turner, 2012; Klement, Sagarin, & Skowronski, 2019; Süssenbach, Eyssel, Rees, & Bohner, 2017). 일례로 성폭력 통념을 높게 수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심각성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폭력 통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현승·박지선, 2021).

성폭력범죄가 허위 신고 또는 잘못 분류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판단자의 성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자의 성범죄 신고가 허위 신고가 아닌 진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피해가 진짜 성폭력 즉 ‘피해자다움’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김보화, 2020). ‘피해자다움’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전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것, 그로 인해 가해자와 성접촉이 없었을 것, 피해자는 주취 상태가 아니었을 것, 피해 직후 신고하였을 것, 수사, 재판 기간 중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을 것,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결여된 모습, 즉 통념에 입각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판단자는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여지가 존재한다(허민숙, 2018). 이와 같이 피해자다움에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다면 사건 자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외적 정보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곧 성과 관련된 인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배심원의 성과 관련된 인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가 피해자다움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특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고,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을 피고인 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및 제3자의 선처 탄원서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 외적 요인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사건 판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으로 감정호소와 탄원서를 조절변수로 삼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피고인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탄원서가 조절할 것인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1)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총 351명(여성 173명, 남성 178명)이다. G-power 분석 결과 본 연구 설계에 따른 필요한 표본 수는 269명으로 그 이상의 표본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전문 사회 조사 기관인 마크로 밀 엠브레인(<https://embrain.com>)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실제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이 178명으로 전체의 50.7%, 여성은 173명으로 전체의 49.3%로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연령의 경우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자 351명 중 60대가 전체의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의 경우 20.2%, 50대가 19.9%, 30대가 19.1%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46명으로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2명 20.5%, 대학원 이상이 33명 9.4%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8명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76명 21.7%,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54명 15.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8명 13.7%, 100만원 미만이 46명 13.1%, 1000만원 이상이 10명 2.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기혼이 202명 57.5%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 및 기타가 149명 42.5%로 나타났다.

2) 절차

본 연구는 2(감정호소: 있음 vs. 없음) × 3(탄원서 제출: 유 vs. 무 vs. 통제 조건) 피험자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로 설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여섯 가지(2 × 3)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무선 배정되었으며, 각 조건은 60명 내외의 연구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목적을 인지할 경우, 연구자의 의도에 맞추어 응답하는 등 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성인 남녀의 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범죄(준강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이후 제시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판단 관련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양형 판단의 응답은 개월 단위로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항을 기입한 후 설문이 종료되었다.

모든 시나리오에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기술되어 있고 실제 준강간 판결문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시나리오로 본 설문을 진행하기 전, 안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학 교수 1명, 사회과학 박사과정 1명, 변호사 1명 총 3명이 각 시나리오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피고인의 전과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형성하여 판단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Greene & Dodge, 1995) 해당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제시, 전과 사실을 통제하였다.

2. 측정도구

1) 양가적 성차별 의식

양가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 안상수 등, 200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절반인 12개 문항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나머지 12개 문항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 의식에 대한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7)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는 해당 척도를 구성하는 12개의 문항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0로 나타났다.

2) 강간 통념 수용도

본 연구에서는 McMahon과 Farmer(2011)의 SRMA(Subtle Rape Myth Accept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5)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이석재, 1999; Burt, 1980).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1로 나타났다.

3)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본 연구에서 배심원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 Scale)을 측정하기 위해 Lipkus, Dalbert와 Siegler(1996)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바탕으로 손정아(201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적 공정 세상 신념(예 : 나는 이 세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8문항 척도와 일반적 공정 세상 신념(예 :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1 : 강하게 반대한다, 6 : “강하게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증으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유죄와 무죄를 판정하는 경향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유무죄에 대한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감정호소 및 탄원서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배심원의 심리특성(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심리특성(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호소 및 탄원서 유무가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형판단의 차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와 탄원서 제출 및 배심원의 신념에 따른 양형 판단 차이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수준, 결혼상태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혼상태는 비혼과 기타의 빈도가 낮아 기혼과 미혼으로만 구분하였고,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빈도가 낮아 고등학교 이하만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분형 변수인 성별, 결혼상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나머지 변인들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모든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즉 인구학적 특성과 양형 판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나타나는 양형 판단의 차이는 조작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유죄를 판단한 빈도에 분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13.656$, $df=1$, $p<.001$).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유죄판정을 한 경우가 88명으로 전체 유죄판정의 61.1%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자는 56명(38.9%)이 유죄판정을 내렸다. 또한, 전체 무죄판정 중 122명(58.9%)이 남자로 여자 85명(41.1%)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 제시된 시나리오와 같은 준강간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남자에 비해 여자가 피고인에게 유죄판정을 내리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교차분석 결과

구분	빈도(%)		전체	χ^2
	남자(N=178)	여자(N=173)		
유죄	56(38.9)	88(61.1)	144(41)	13.656***
무죄	122(58.9)	85(41.1)	207(59)	

주 : *** $p<.001$

2. 피고인 요인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와 탄원서 제출여부에 따른 양형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감정호소와 탄원서 제출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143)=.128$, $p=.880$). 감정호소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1, 144)=3.782$, $p=.054$), 탄원서 제출여부에 따른 양형판단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 144)=4.945$, $p<.01$, $\eta^2=.066$). 피고인측 탄원서가 제출된 조건이 제출되지 않은 조건과 통제조건보다 양형 판단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탄원서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탄원서 유무에 따른 양형 판단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양 형				
		N	M(SD)	F	p	Tukey
탄원서	긍정적 내용 탄원서 유a	43	11.51(10.84)	5.652	.004	a<b=c
	긍정적 내용 탄원서 무b	58	22.41(22.83)			
	무정보c (통제조건)	44	25.50(24.21)			

3.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따른 유무죄 판단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분형 변수인 감정호소와 탄원서 유무의 경우 조절변인으로 가정되므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상관분석시 함께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3〉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양형은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탄원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형 판단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양가적 성차별 의식($r=-.372$, $p<.01$)이며, 강간통념($r=-.371$, $p<.01$) 탄원서($r=-.265$, $p<.01$)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없었으므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1. 양형판단	-					
2. 양가적 성차별	-.372**	-				
3. 강간통념	-.371**	.735**	-			
4. 공정세상	.091	.065	.056	-		
5. 감정호소	-.175	-.030	-.009	-.051	-	
6. 탄원서	-.265**	-.089	-.079	-.012	.006	-

주 : * $p<.05$, ** $p<.01$

다음으로 배심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배심원의 심리특성 중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와 유무죄 판단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며($\chi^2=70.231$, $p<.001$, $-2LL=404.989$),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 의식이 1만큼 커질수록 배심원이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1.0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 통념 수용도가 1만큼 커질수록 배심원이 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1.04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배심원이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표 4〉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유무죄 판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p	EXP(B)
양가적 성차별	-.020	.007	8.969	.003	1.021
강간 통념 수용도	-.035	.011	9.984	.002	1.036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063	.011	.065	.799	1.003

4. 배심원 심리특성에 따른 양형 판단에 대한 피고인 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피고인 양형의 관계에서 감정호소 및 탄원서 제출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에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조절변인에는 이분형 변인인 감정호소, 탄원서 제출여부가 0, 1의 더미변인으로 재코딩되었고, 종속변수에는 양형 판단이 투입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유의성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Hayes(2017)의 제안에 따라 10,000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탄원서 유무의 상호작용항이 양형 판단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363$, $p<.05$) 설명력은 26.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설명력의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33$, $p<.05$). 이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강간 통념 수용도와 탄원서 유무의 상호작용항이 양형 판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683$,

$p<.01$), 설명력은 28.6%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의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48$, $p<.01$). 이는 강간 통념 수용도와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배심원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양가적 성차별, 강간 통념,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의 조절효과

변인	B	S.E	<i>t</i>	95% CI	
				LL	UL
양가적 성차별	-.411	.067	-6.107***	-.544	-.278
탄원서	-38.858	10.395	-3.738***	-.59.409	-18.308
양가적 × 탄원서	.363	.145	2.499*	0.758	.649
강간통념 수용도	-.709	.109	-6.532***	-.923	-.494
탄원서	-47.108	11.028	-4.272***	-68.911	-25.306
강간통념 × 탄원서	.683	.223	3.069**	.243	1.123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390	.560	-.695	-1.497	.718
탄원서	-6.885	18.801	-.366	-44.054	30.284
공정세상 × 탄원서	.334	.322	1.037	-.301	.971

주1 : * $p<.05$, ** $p<.01$, *** $p<.001$

주2 : 탄원서 유무 : 유 = 1, 무 = 0

또한,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인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의 관계에서 감정호소의 조절효과는 〈표 6〉과 같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양가적 성차별, 강간 통념,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양형의 관계에서 감정호소의 조절효과

변인	B	S.E	<i>t</i>	95% CI	
				LL	UL
양가적 성차별	-.331	.090	-3.670***	-.509	-.153
감정호소	-10.931	9.501	-1.151	-29.714	7.852
양가적 × 감정호소	.051	.126	.403	-.199	.300
강간통념 수용도	-.666	.161	-4.125***	-.985	-.347
감정호소	-21.823	10.717	-2.036*	-43.010	-.635
강간통념 × 감정호소	.306	.207	.142	-.103	.715

변인	B	S.E	t	95% CI	
				LL	UL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319	.221	1.448	-.117	.755
감정호소	8.278	17.988	.460	-27.283	43.840
공정세상 × 감정호소	-.276	.308	-.894	-.885	.334

주1 : * $p < .05$, ** $p < .01$, *** $p < .001$

주2 : 감정호소 유무 : 유 = 1, 무 = 0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조절효과 내용을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고 [그림 1]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두 직선의 기울기는 상호작용의 공식적인 탐색을 통하여 수량화되었는데, 조절변인이 이분형 변인인 경우에는 한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즉, 조절변인인 탄원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초점예측변수인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효과를 추정한다(Hayes, 2015).

양가적 성차별 의식 총점이 높을수록 통념 수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가적 성차별 의식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탄원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탄원서의 부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탄원서가 없는 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탄원서가 있는 조건에서($B = -.411$, $t = -6.107$, $p < .0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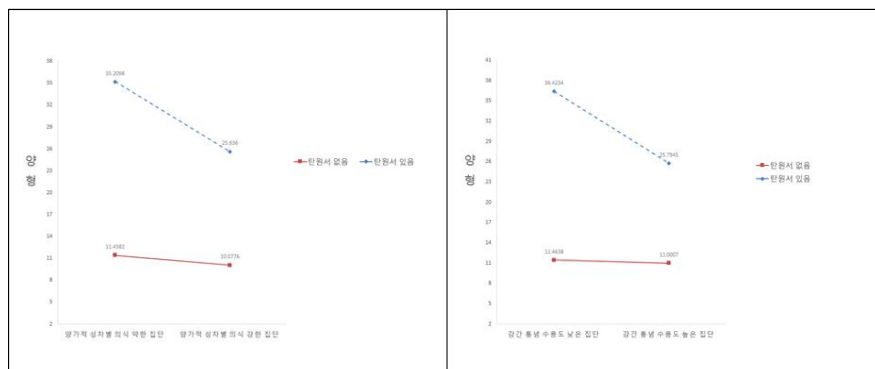
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탄원서 유	-.411	.067	-6.107***	-.544	-.278
탄원서 무	-.049	.129	-.378	-.303	.206

주 : * $p < .05$, ** $p < .01$, *** $p < .001$

<표 8> 강간 통념 수용도 수준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탄원서 유	-.709	.109	-6.532***	-.923	-.494
탄원서 무	-.028	.194	-.132	-.410	.358

주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수준과 양형의 관계에서 탄원서 유무의 조절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범죄사건에서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에 따라 성범죄사건의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고 특히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호소, 탄원서 유무,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따라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질적 재판에서 양형 인자 등 변수들을 조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시나리오를 사용한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피고인 처벌판단에는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판단자의 태도 등 법 외적 요인들 역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Devine & Caughlin).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외적 요인 중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 의사의 고려 없이 양형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문, 선처 탄원서와 같은 양형 인자가 일반인들의 양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범죄자의 성별, 연령, 인종 및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법률 외적 요인들이 양형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Steffensmeier 외, 1995; Freeman, 2006; Devine & Caughlin, 2014; D'Alessio & Stolzenberg, 1993, 김범준, 2007)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법률 외적 요인들이 피고인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 측이 긍정적인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을 좀 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 결과, 선처 탄원서가 있는 조건에서 형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의 배심원에 대한 감정보호소는 양형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측 선처 탄원서가 피고인의 양형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김광준 외, 2008)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준거로서 피고인 자신이 변론하는 것 보다 제3자의 탄원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 제시된 피고인 가족이나 지인 등의 탄원서는 성범죄사건과 관계가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범죄사건과 무관한 피고인 측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본 준강간 시나리오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강간 사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낮은 판단자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높게 한다는 선행 연구(조은경·박지선,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배심원의 심리특성에 해당하는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유무죄 판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양형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해자를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강간 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고인을 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존의 연구(이석재, 1999; 김보경·김범준·최종안,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범죄 사건의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이들 신념과 양형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탄원서 유무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상승할수록 양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탄원서가 제출된 조건에서는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낮은 형량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피해자 비난을 더 강하

게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실증적 연구들과 이어지는 결과이다(이예림·박지선, 2021).

본 연구는 배심원의 심리특성과 피고인 요인에 따른 피고인 처벌판단에 있어 실제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성범죄사건에 대한 처벌판단을 확인하는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김성현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 등을 고려한 폭넓고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미치는 요인들 중 피해자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피고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들은 과학적, 실증적 근거 없이 “성범죄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면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피고인의 감정호소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과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국민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양형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과거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감정호소나 탄원서와 같은 성범죄 양형 인자가 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심리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가 부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호소와 탄원서라는 법률 외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최근 재판부에 제출되는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범죄 반성문, 탄원서 대필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반성이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한다는 점, 양형 판단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점, 진지한 반성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는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선처 탄원서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탄원서가 제출된 조건에서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은 배심원은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낮은 형량을 부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사건을 판단할 때 배제하여야 할 부분 등을 다루는 배심원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감정호소 등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당면한 어려움 등을 반영한 피해 평가 결과도 더욱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사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시 남녀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배심원의 심리 특성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배심원의 성향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피고인의 직업이나 성행과 같은 부분은 사건 판단에 고려 대상에서 배제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실제 성범죄 피고인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각적인 보조 자료나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설문조사의 특성상 실제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생동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구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재판 과정과 달리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성인 남녀의 性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가장 연구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응답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 연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법률 외적 요인의 재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사건에서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양형 인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준강간 사건 외 다양한 성범죄 양형 인자의 영향력 검증 및 법적 판단의 차이가 이루어지고 연구에서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외 권위주의 척도 등 배심원의 심리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예 (2022). "형사절차에 있어 성격증거의 편향성과 증명력 - 미국 증거법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107-144.
- 경향신문 (2021.12.2). "성범죄·강력 사건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쏠리는 까닭은... 피해자 권리 실종 우려도".
<http://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021304001>에서 2022.1.25. 인출.
- 고민조·박주용 (2020). "피고인의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법*. 제10권 제3호. 215-235.
- 김광준·박미숙·이정민·임유석·추형관·황지태 (2008).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II)-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486.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협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3호. 57-73
- 김병수 (2018).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 35-63.
- 김보경·김범준·최종안 (2020).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1권 제3호. 309-327.
- 김보화 (2020).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현·임광현·성현준·성나경·김성희·김광수·이수정 (2019).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4호. 3-36.
- 김창택·최인철 (2010).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4호. 317-345.
- 김현수 (200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14-245.
- 김현승·박지선 (2021).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3-123.
-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자료 (2022). 2022-13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견.

- 박광배·김상준·이은로·서혜선 (2005).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3호. 1-21.
- 손정아 (2015).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공정세상신념이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2호. 39-66.
- 여인권·이경렬 (2014).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3호. 205-230.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131-148.
- 이예림·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2권 제1호. 75-97.
- 윤영석 (202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107-136.
- 정종섭 (1996).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4집, 건국대학교 연구, 제25권 제3호, 205-230.
- 조선일보 (2012.11.23). “누나 살해 흉악범, 국민참여재판 신청…동정심 유발, 형량 낮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8662.html>에서 2022.8.29. 인출.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4권 제1호, 45-66.
- 한겨레 (2021.11.10).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릴게요”… 성범죄 가해자 지원 ‘시장’이 섰다”.
<http://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021304001>에서 2022.1.25 인출.
- 한인섭 (2009).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681-710.
- 한상훈 (2016).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7권 제2호. 67-83.
- 허민숙 (2018).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 1-31.
- 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2권 제3호. 101-118.
- 홍진영 (2017).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판 운용의 실무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5호. 280-340.
- YTN (2018.10.2). “배심원 vs 판사 의견 일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188&key=201810021536562669>에서 2022.8.29. 인출.
- Hayes, Andrew F. (2015).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역). 서울: 신영사(원서출판 2015).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D'Alessio, S. J., & Stolzenberg, L. (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sentencing of the traditional off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1), 61-77.
- Devine, D. J., & Caughlin, D. E. (2014).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2), 109.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0), 2379-2394.
- Greene, E., & Dodge, M. (1995). The influence of prior record evidence on juror decision 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19(1), 67-78.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 Klement, K. R., Sagarin, B. J., & Skowronski, J. J. (2019). Accusers lie and other myths: Rape myth acceptance predicts judgments made about accusers and accused perpetrators in a rape case. *Sex Roles*, 81(1), 16-33.
- London, K., & Nunez, N. (2000). The effect of jury deliberations on jurors' propensity to disregard inadmissible evid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932-939.

- Steffensmeier, D., Kramer, J., & Ulmer, J. (1995). Age differences in sentencing. *Justice Quarterly*, 12(3), 583-602.
- Süssenbach, P., Eyssel, F., Rees, J., & Bohner, G. (2017). Looking for blame: Rape myth acceptance and attention to victim and perpetrat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5), 2323-2344.

Abstract

Effects of jury characteristic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fendant's factors in the sentencing judgment of sexual crime cases

Kyujin Hwang*·Woohyun Park**·Soojung Le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non-legal factors such a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ury and the factors of the defendant on the jury's legal judgm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defendant's emotional appeal and the petition for leniency of a third party could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jury'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ntencing judgment. For this study, data of a total of 351 participants (173 females, 178 males) between the ages of 20 to 69 who are likely to be selected by jury for the Korean jury trial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jurors with higher ambivalent sexism and rape myths imposed not guilty on the accused. Second, there were possibilities that the third party's petition may have an effect on reducing the defendant's senten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ntencing depending on the defendant's emotional appeal to the jury. Third, the petition of a third party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uro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fendant factors of the jury outside the law affect the jury's legal judg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media's public opinion-driven argument that appealing for sympathy in the Korean jury trial is advantageous for sentencing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Also,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entence of a sexual crime case, it was suggested that the petition of a third party could be more persuasive than the defendant's own defen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Sentencing guidelines, Korean jury trial, Emotional appeal, Petiti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ury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Kyonggi University

*** Co-Author: Doctoral Student,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yonggi University